

0. 음향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며...

- 제게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5주였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 큰 이슈는 없었지만, 팀장인 저 또한 공연에 처음 참여해보기도 했고, 공연을 진행하며 관련 지식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인수인계서 하나로 5주간의 활동에 대해 개요를 짜고 실행에 옮기며 그 안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해본 여러 일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배운 점이 많았던 5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팀장님은 공연 경험이 있길 바라며, 가능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인수인계서는 제가 5주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1주차]

- 1주차엔 대본을 읽어보고, 작년 영상도 찾아보게 하여 공연에서 음향이라는 팀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지 팀원들에게 설명하는 주였습니다.
- 올모스트 메인의 경우에는 대본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대본이 나오기 전 팀원들에게 읽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기에, 첫 주에는 대본을 읽어보고 관련해서 필요한 음향이 무엇이 있는지 각 막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의 음향이 잘 어울릴 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① 대본 분석

생각외로 대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올모스트 메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음향이 대본에 명시되어 있고, 찾아야 할 음원이 명확했습니다. 워크샵이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빠지고, 또 예상외의 부분에서 추가된 것도 있으니 항상 연출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본을 계속해서 읽다보면 느껴지는 새로운 감정과 장면들을 연출과 상의해 보며 음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본을 읽는 것은 다다이선입니다. 아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제 경험사 대본을 많이 읽어보고 장면 연습을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이후의 음향오퍼에서 큰 실수를 안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② 작년 영상 찾아보기

웬만하면 대본을 읽어보게 하고 작년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합니다. 대본을 읽으면서 처음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이 중요한 것인데, 영상을 보고 난 뒤 읽게되면 그러한 감정에 너무 방향이 잡혀버리기에 대본을 꼭 먼저 읽게 하시길 바랍니다.

③ 워크샵에서의 5주

학교일정도 소화하면서 워크샵 일정까지 소화하는 게 생각보다 버겁습니다. 그렇기에 팀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과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선 팀원들의 스케줄을 받고 모든 인원이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내 그 시간대를 회의 시간으로 지정하고 팀원에게는 어떻게든 그 시간대를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나마 다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겁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다같이 회의를 해본적이 없네요.. 워크샵이 대부분 신입생+

신입기수로 이루어져 공연이 진행되다 보니 극회를 제외하고도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인원들이 많아 아무리 시간대를 고정해 놓아도 참여를 못하는 인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인원들의 스케줄을 받으며 공통된 시간대를 찾았던 방법입니다.

원곡/작곡가	악기/악보	복합악기						
영문	손원빈(20)							
영문	박단(20)							
영문	윤영경(23)							
영문	이원재(23)	영문 영문 수필로써 외의 참여 가능			3인 가능			# 주말은 최대한 제외
영문	정지희(23)				6인 가능			
영문	한기주(23)				전부 가능			
영문	윤희원(23)							
시간	원곡	악기	복합악기	수	목	금	토	일
09:00~10:00	손원빈, 박단,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박단, 윤희원, 한기주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정지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정지희	손원빈, 박단, 윤희원, 윤영경, 한기주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0:00~11:00	손원빈, 박단,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한기주	손원빈, 박단, 윤희원, 한기주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정지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정지희	손원빈, 박단, 윤희원, 윤영경, 한기주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1:00~12:00	박단,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손원빈, 윤영경, 한기주	박단, 윤희원, 한기주	윤희원, 윤영경	박단, 윤영경, 한기주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2:00~13:00	박단,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박단, 윤영경, 정지희	박단, 윤희원, 정지희	윤영경, 한기주	박단, 윤영경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3:00~14:00	손원빈, 박단,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정지희	박단, 윤희원, 정지희	윤영경	박단, 윤영경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4:00~15:00	손원빈, 박단, 윤희원,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윤영경	박단, 윤영경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5:00~16:00	손원빈, 박단, 이원재, 한기주	손원빈, 박단,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박단, 윤희원, 윤영경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6:00~17:00	손원빈,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박단,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박단	윤영경,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7:00~18:00	손원빈,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정지희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손원빈	윤영경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8:00~19:00	손원빈,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손원빈, 윤영경, 이원재, 정지희	윤희원, 이원재, 한기주	손원빈, 윤희원, 한기주	손원빈, 윤희원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19:00~20:00	손원빈, 박단, 윤영경, 이원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정지희	윤희원,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윤희원, 이원재, 한기주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20:00~21:00	손원빈, 박단, 윤영경, 이원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정지희	윤희원,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21:00~22:00	손원빈, 박단, 윤영경, 이원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정지희	윤희원,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손원빈,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박단, 윤희원, 윤영경, 이원재, 한기주, 정지희

[2주차]

① 필요 음향 추리기 및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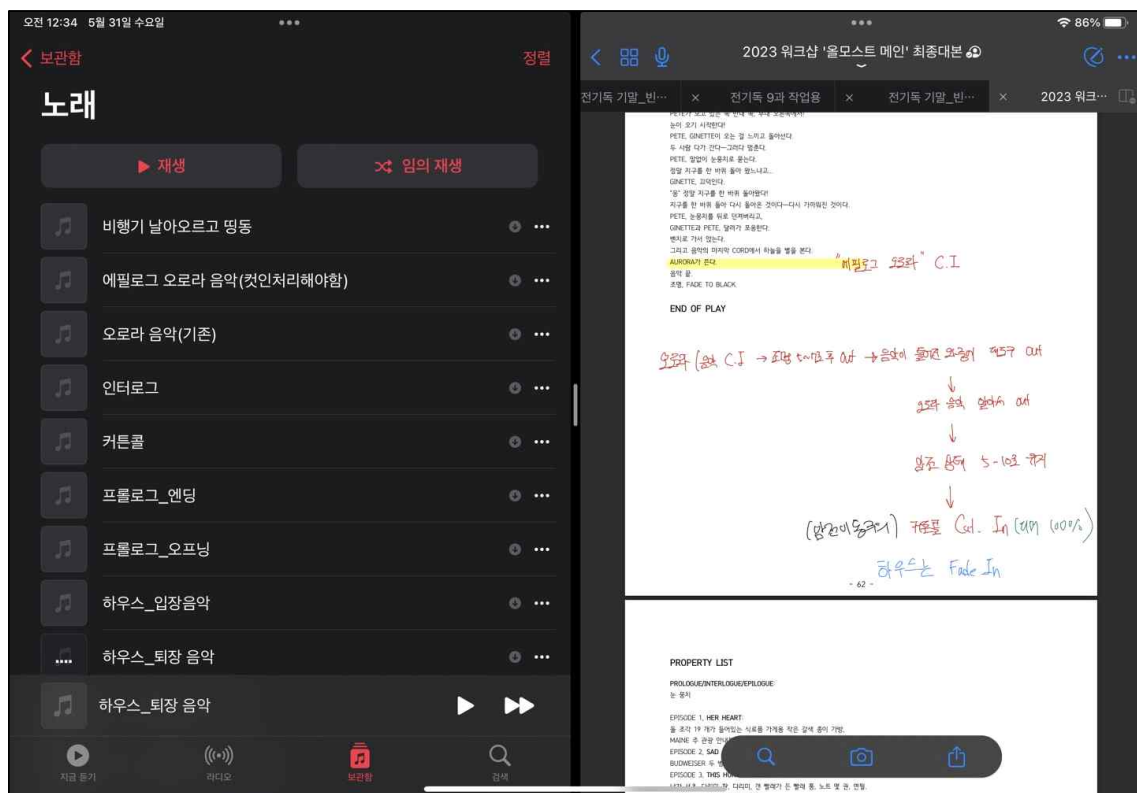
이제 대본을 읽고 분석했다면 필요한 음향을 추려야할 때입니다. 올모스트 메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음향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음향을 추리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초반에 연출진과의 음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하는 것을 선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느낌의 음향이 필요한지, 본인이 생각하는 위 음향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공연 준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연출은 바빠질 수 밖에 없기도하고, 특히 워크샵 기간에는 캐스트 연습 이외의 분야에 신경쓸만한 거를이 없어보입니다.

Cue#	Scene #	장면	배경 음악 / 효과음	직전대사/조명	큐	비고
1	하우스	일장음악	하우스 음악			
2	Prol.	Pett & Ginette	Prol. 전반부 음악	시작하면서 바로	F.I	
3	Prol.	Pett & Ginette	Prol. 전반부 음악	벤지 P&G 작석	F.O	
4	Prol.	Pett & Ginette	Prol. 후반부 음악		F.I	
5	막전판	East&Glory	Prol. 후반부 음악		F.O	
7	E.1.	East&Glory	오로라 음악	(합전)	오로라 F.I	
8	막전판	Jimmy&Sandrine	오로라 음악	Transitional Aurora 장면	오로라 F.O	
9	E.2.	Jimmy&Sandrine	오로라 음악	(합전)	오로라 F.I	
10	막전판	Gayle&Lendall	오로라 음악	Transitional Aurora 장면	오로라 F.O	
12	E.4.	Gayle&Lendall	오로라 음악	(합전)	오로라 F.I	
13	막전판	Steve, Marvalyn.	오로라 음악	Transitional Aurora 장면	오로라 F.O	
14	E.3.	Steve, Marvalyn.	오로라 음악	(합전)	오로라 F.I	
15	Inter	Inter. Pett	???	?	F.I	
16	E.6.	phil&marcy	???	?	F.O	
17	E.6.	phil&marcy	# 차 문/트렁크 효과음	P : "당신... 스케이트 어디서 신었지? 여기야 아니면 자야?"	C.I / C.O	
18	E.6.	phil&marcy	# 차 시동 걸고 떠나는 효과음	M : 주머니에서 키 꺼내들고 화장 직후	C.I / C.O	
19	E.6.	phil&marcy	오로라 음악	(합전)	오로라 F.I	
20	E.7.	Hope & Daniel	오로라 음악	Transitional Aurora 장면	오로라 F.O	
21	E.7.	Hope & Daniel	# 택시가 다가오고	(택시가 다가와 공회전, 차 문이 열렸다 닫혔다.)	C.I & C.O	
22	E.7.	Hope & Daniel	공회전하고 떠나는 소리	(택시 떠남)	C.I & C.O	
23	E.7.	Hope & Daniel	# 초인종 소리	(현관 벨 소리)	C.I & C.O	
24	E.7.	Hope & Daniel	오로라 음악	(합전)	오로라 F.I	
25	막전판	Dave&Ronda	오로라 음악	Transitional Aurora 장면	오로라 F.O	
26	E.8	Dave&Ronda	# Snowmobile 주차 효과음	E.8 시작 직후	C.I / C.O	
27	E.8	Dave&Ronda	오로라 음악	(합전)	오로라 F.I	
28		Pett & Ginette	??	Transitional Aurora 장면	오로라 F.O	
29	Epil.	Pett & Ginette	??		Epilogue F.I	
30	Epil.					
31		커튼콜 음악				
		회장 하우스				

② 큐시트 작성

우선 54회 워크샵 올모스트 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연때는 큐시트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각 에피소드의 엔딩 음악이 전체적으로 삭제되기도 했고, 대다수의 효과음도 사용하지 않게 되어 큐가 30개 정도 밖에는 없었고, 그마저도 공연 며칠 전에 오퍼를 보는 팀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차라리 대본에 음향의 큐시점을 적어두고 오퍼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오퍼실이 너무나 협소했던 관계로 이전처럼 컴퓨터를 통해 음향을 끄고 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아이패드를 통해 한꺼번에 대본을 보면서 음향을 켜고끄는 것을 한번에 하는 방향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큐시트를 작성하는 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 사진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적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작성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③ 연출과의 지속적 확인과 대화

공연하면서 가장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연출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도 대면으로, 특히 음향 들려줄 때도 웬만하면 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으로 링크나 파일을 전달하고 컨펌을 받는 것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긴다면 음향팀 내에서 회의 후 정해진 음향을 연출에게 직접 들려주며 그 자리에서 컨펌 받고,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④ 팀원과의 소통

제일 어렵습니다. 수평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포기하시는 게 빠릅니다. 차라리 오더를 내리고 받는 것이 더 편할 듯 합니다. 인원이 적다면 모르겠지만, 참여 인원이 많은 공연에서는 모두의 생각을 물어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고, 또 다시 회의하고 하는 식의 방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기 중에 올리는 공연이다 보니 다른 팀원들의 시간 또한 넉넉지 않다는 것을 또 강조드립니다.

[2~4주차]

① 음원 탐색

유튜브 활용. 정말 많은 음악을 하나하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대본에 맞는 음향을 선택해야합니다. 사실 여기서 설명하지 못할 어떤 센스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 부분에 이러한 음악이 적당할 것 같다는 어떤 센스? 이걸 글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본을 많이 읽어보고, 팀원들과 상의도 많이 해보며, 많은 음악을 들어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② 음원 편집

전 프리미어를 사용하여 음향 편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탐색한 음향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https://www.y2mate.com/kr527/youtube-mp3>

저는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고 무료지만, 광고가 자극적인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향 편집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매우매우 많았기에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향 편집은 팀장님 혼자 혹은 팀원 1인에게 온전히 맡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음향을 분배하고 편집시키고 수합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음향 편집 기술을 혼자 공부하고 또 그 많은 인원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시간을 워크샵 기간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합니다.

③ 캐스트 연습 참관(~ 무대 제작 직전)

전 팀원들에게 참관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출과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도 하고, 팀원들이 어떤 음향을 사용하고 어떤 지점에서 오퍼를 진행해야하는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기에 전 나름 괜찮았던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연습참관이 매우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대본과 큐시트만을 보고 정확한 큐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올모스트 메인 음향 같은 경우에는 조명과 합이 중요하고, 같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점이 많기에, 가능하면 조명 오퍼팀과 함께 많은 참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극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보니, 그때그때 완벽하게 큐시점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상황에서도 배우의 동선을 확인해야 하기에 참관을 통해 그 시점을 몸소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들의 장면연습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음향이 정해져 연습에서 오퍼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최소 주에 2번씩은 오퍼를 보는 인원들을 참관시켜야 합니다. 또한 간이 오퍼 연습도 진행하는 방안으로 이번 공연 연습 기간 중에는 제 스피커의 볼륨 버튼을 디머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향팀 캐스팅 연습 참관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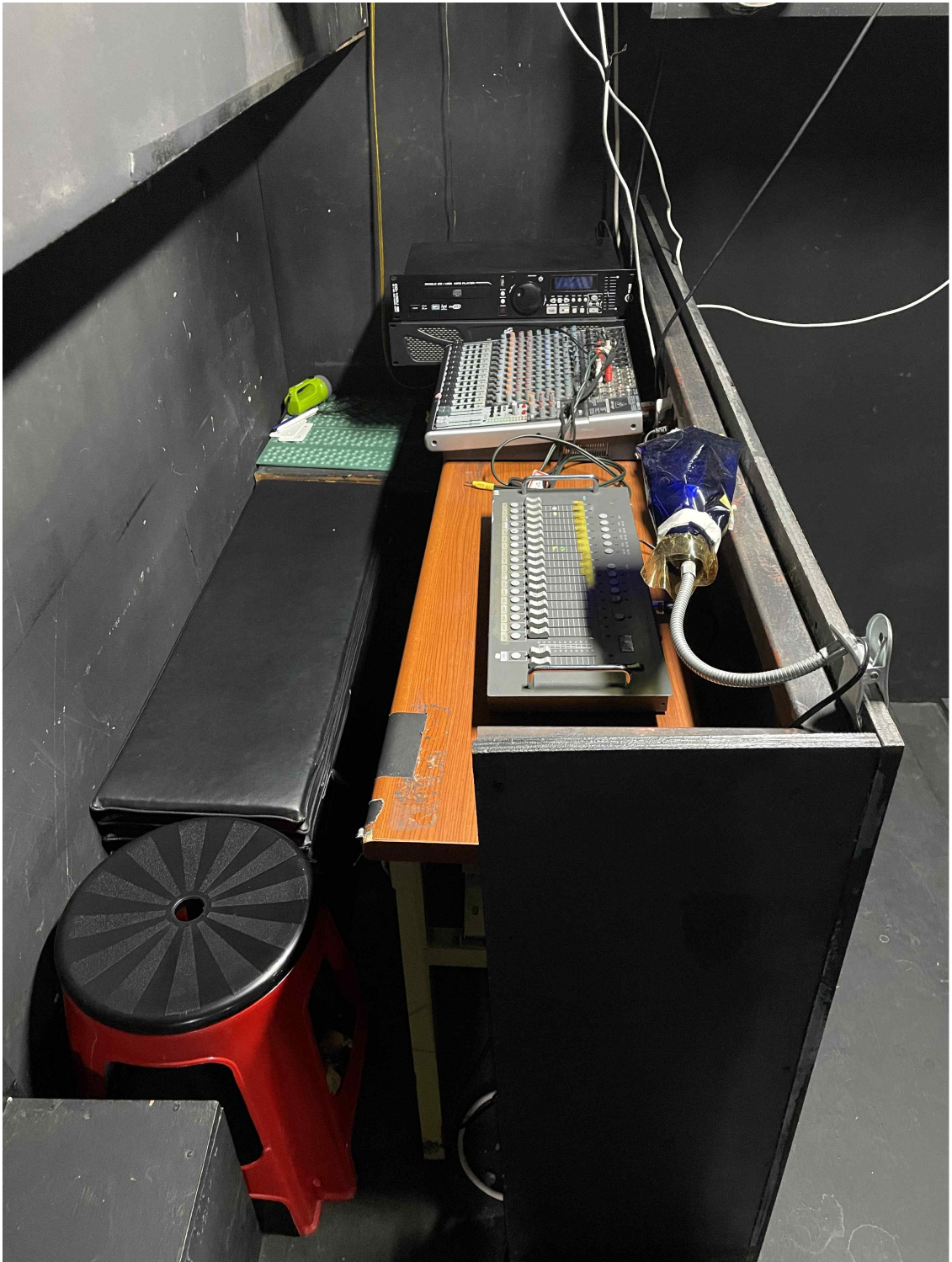
이름 :	참관 캠퍼스 :
참관 에피소드(등장인물) :	참관 시간(날짜) :
해당 에피소드에 사용해야 할 음악/효과음 :	
참관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음향/효과음 사용 타이밍 : (최대한 자세히 작성, 가능하면 호흡까지도 고려, 최-대한 디테일) (예시) (1번 마디) (2번 마디) 두 마디 사이에는 꼭 이렇게 음향을 넣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느낌 + 생각나는 음향의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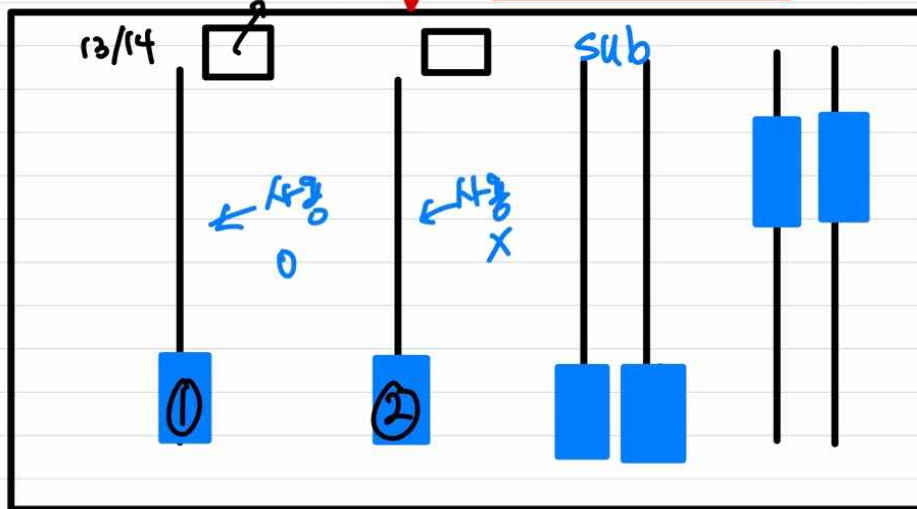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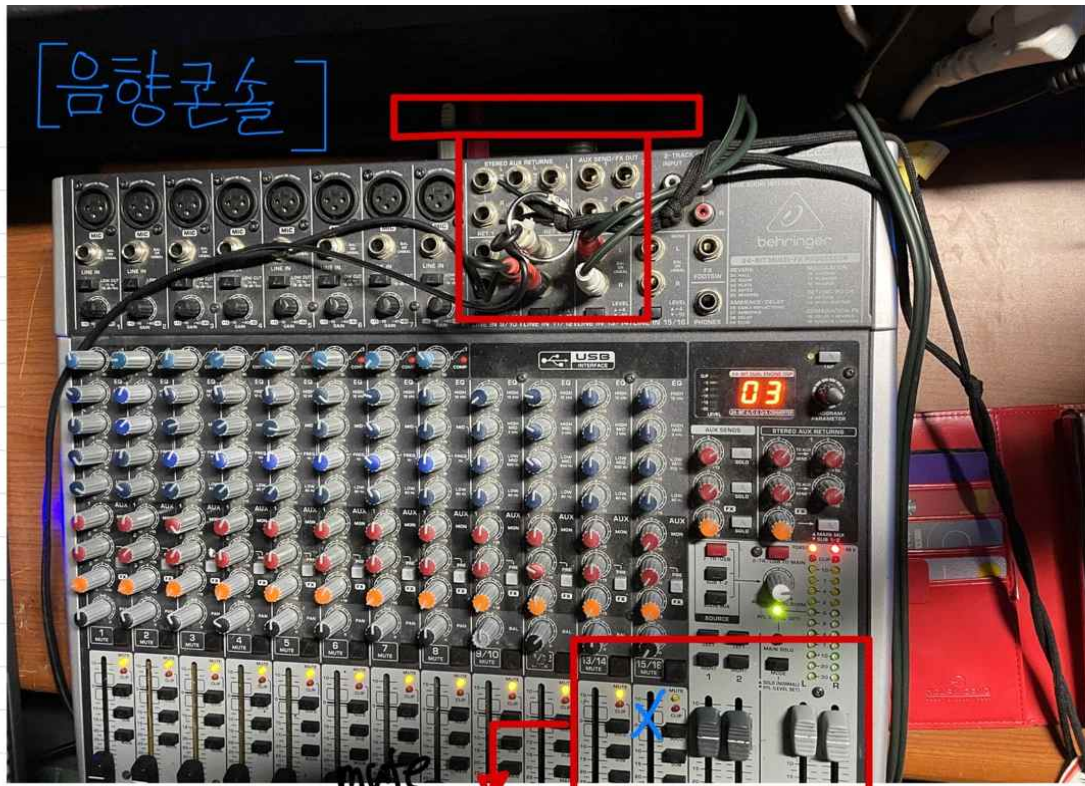
[리허설 ~ 실제 공연까지]

① 리허설과 뒷깍이

무대를 설치하는 날부터 드디어 음향은 공연장에 입성하여 디머를 활용한 음향 오퍼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리허설 연습참여와 뒷깍이를 통해 디머의 감을 익혀야 하며 암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암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54회 워크샵이 진행되었던, sk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오퍼실이 매우 협소했고, 관객과 크게 분리되지 않았으며, 오퍼실 내에서 암전상황에서의 무대를 보고 오퍼를 진행하는 것이 오롯이 자신의 귀와 눈의 감각을 통해서만 판단해야합니다. 최대한 야광 테이프의 움직임을 잘 느끼시고, 무대 위 캐스트들의 동선도 파악하고 소리로 발자국 소리에 귀기울이셔야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리허설 때 암전시간을 미리 체크하여 일일이 확인하며 오퍼레이션을 진행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조명이 음향 이후 1-2초 이내에 뒤따라오는 장면이 많기에, 만약 그러한 장면에서 음향에 실수가 나오면 조명실수가 자연스레 뒤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연 하루 전 날 리허설 때는 이와 관련한 엄청난 대참사가 있었기에, 관련 리허설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십시오...) 위의 큐시트 파트에서 서술했듯이 이번 공연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오퍼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앱은 아이패드 음악 기본앱을 사용하였고, 아이패드에 스피커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구매하여 아이패드에서 재생/멈춤을 컨트롤 하였고, 볼륨은 음향 콘솔의 디머를 사용하여 컨트롤 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편리하긴 하지만 실수의 요소가 좀 많습니다. 아이패드가 기본 음악앱이 자연스럽게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서, 멈춤 버튼을 늦게 누르거나, 디머를 조금이라도 덜 내리게 되면 공연 중 대참사로 이어지니 관련해서 음향팀장님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사진 참고)





main 버튼을 올리고

- ① 버튼 통해서 F/I, F/O
- ① 올리거나 C/I, C/O

[용어정리(출처 : 53회 워크샵)]

- 하우스 음악: 관객 입장, 퇴장 시 재생하는 음악 (입장 음악과 퇴장 음악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 커튼콜 음악: 극이 끝나고,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 재생하는 음악
- 장간 음악: 장과 장 사이에 들어가는 음악 (극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올모스트 메인의 경우 옴니버스식 극이라 장간 음악이 존재하였다.)> 다만 54회 공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막간 음악: 막과 막 사이에 들어가는 음악 (보통 어떤 극이든 막간 음악은 사용한다.)
- ▶ 올모스트 메인의 경우에는 흔히 “오로라 음악”이라 불렀습니다.
- 효과음: 문 열리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등의 효과음 (보통 대본에 지문으로 적혀 있다.)
- 디머: 음향 콘솔에서 음향의 볼륨을 조절하는 키
- F.I. (페이드인): 음향을 서서히 키는 것 (디머를 올려서), 딤인으로 말하기도 함
- F.O.(페이드아웃): 음향을 서서히 끄는 것 (디머를 내려서), 딤아웃으로 말하기도 함
- C.I. (컷인): 음향을 한 번에 키는 것 (디머가 올려진 상태에서 재생)
- C.O. (컷아웃): 음향을 한 번에 끄는 것 (재생을 멈추거나, 디머를 빠르게 내림)
- * 효과음이 아닌 이상 보통 모든 음향은 F.I. & F.O.으로 들어가게 되고, 효과음의 경우 C.I.& C.O.으로 들어간다.
- #. 이에 추가하여 효과음이 페이드 인/아웃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장면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아웃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편집할 때 그러한 효과를 넣어 편집한 뒤, 실제 오퍼레이션에서는 컷인/컷아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또한 약간의 팁이라면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매우 짧아 자칫하면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 관객에게 들리는 대참사가 날 수 있기에, 웬만하면 효과음 뒤에 5-10초 정도의 빈공간을 만들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으로서 해야할 일]

- 매주 키스텝 회의 참석
- 매주 정기 음향 회의 회의록 작성
- 기획 팀에서 조사하는 필수 참여 투표, 선호 투표 등 팀원들 누락 없게 하기.
- 다른 키스텝 많이많이 도와드리고 응원하기
- 고뇌

[마치며]

To. 다음의 위클리 혹은 다음의 피공연을 맡으실 음향팀장님께...

저희가 그 외의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인스타그램을 작성하다보니 공간공간 이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 - 4312 - 3308 / 손현빈)

서러므로 힘든 일이 많지만, 저하고보니 전무 의미가 되네요.

생각해보니 정말 음향만이 아니라 공연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좋았던 경험이 오롯이 다음 음향팀장님께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